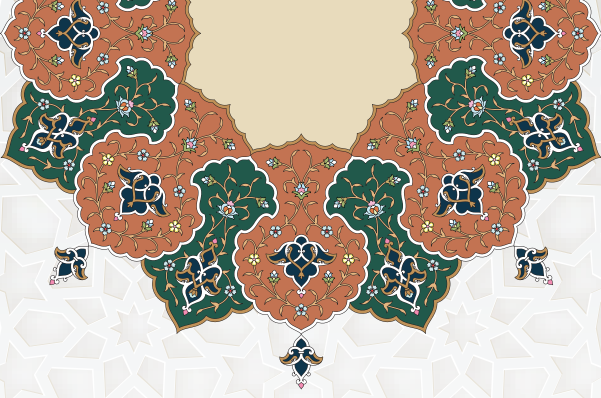


예수:
이슬람의 예언자





예수: 이슬람의 예언자



예수(아랍어 이사)는 예언자였다.

무슬림들은 예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이스라엘 자손을 새로운 경전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진 알라(하나님)의 예언자 중 하나라고 믿는다. 사실, 알라의 예언자와 메신저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에 대한 기본 신념이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모세와 예수와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는다 말하라." (알 이므란 장, 3/84)

예수(이사)는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선구자로 여겨지며 무슬림들은 그가 후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통보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슬람 신조에 따르면, 이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종교는 항상 오직 하나의 신에게 평화롭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슬람이었다.

꾸란의 또 다른 구절 (5/46)은 예수(이사)가 모세와 같은 전의 예언자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확언한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우리는 신약을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이는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이라." (마이다 장, 5/46)

꾸란의 25 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는 또한 "마리아의 아들; 구세주; 알라의 종; 알라의 메신저"라고 호칭된다. 그는 또한 "알라의 말씀", "알라의 영", "알라의 표시", 그리고 15 개의 다른 장에 걸쳐 수많은 다른 명예의 별칭으로도 호칭된다.

마리아 및 예수의 동정녀로부터의 (마리아로부터의) 탄생



무슬림들은 예수(이사)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한다. 많은 무슬림들은 그들의 자녀를 이사 (예수)와 마리암 (마리아)이라고 명명한다. 꾸란에는 마리암이라는 장이 있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므란(요아킴)의 이름을 딴 다른 장도 있다. 꾸란에 따르면 마리아는 기적적으로 예수를 낳은 정결하고 처녀인 여성이었다:

"*또 천사가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청결케 했으며 너를 모든 여성들 위에 두셨노라.*" (알 이므란 장, 3/42)

무슬림들은 예수가 고귀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예수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을 예수에 대한 신성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도 저를*

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알라(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알 이므란 장, 3/47)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알 이므란 장, 3/59)

아담의 아버지와 어머니없이 태어난 것은 훨씬 더 기적적이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자기 백성에게 데려왔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론의 누이여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노라. 그러자 그녀는 그 애를 가르켰더라. 이때 모두가 요람 안에 있는 아기와 어떻게 말을 하란 말이뇨 라고 말하더라." (마르얌 장, 19/27-29) 그리고 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택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저를 축복받은 자로 하셨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희사금)를 바치라 저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저의 모친에게 효도하라 하셨고 저로 하여금 거만하지 아니하고



불행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탄생한 날과 제가 임종하는 날과 제가 살아서 부활하는 날에 저에게 평화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르얌 장, 19/30-33)

예수의 기적

예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탐구에서 그를 도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 보내리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 실 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낫게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자를 살게하며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너희가 무엇을 집안에 축적하는가를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을 때 너희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내 이전에 율법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너희에게 금지되었던 몇 가지를 허용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왔으며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사 너희들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알 이므란 장, 3/49–51)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무슬림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으로 보지 않고 다른 예언자들처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신성하게 선택된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파트너의 믿음을 금지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분에 비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슈라 장, 42/11) 그리고 *"그분(하나님)은 낳지도 않으셨고 낳아지지도 않으셨느니라."*
(이클라스 장, 112/3)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나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부활되고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 있다고 믿는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지 않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못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을 할 따름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니사 장, 4/157-158)

다음 말씀과 관련하여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들(유대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승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평범한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육신으로 여전히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알라에 의해 하늘로 "승천됐다"는 것은 알라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는가?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은 아담과 하와(이브)의 하나님께 불복종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온 인류가 그 원죄로 저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를 위한 죽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우리를 정화시키거나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인간 본성은 기본적으로 악(원죄로 인해)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달리 이슬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결백하며 의식적으로 죄를 범할 때만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따라서 이슬람에는 “원죄” 라는 것도 없다.

이슬람의 죄 개념은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이것은 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동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꾸란 (17/15)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동만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사람임을 분명히 한다. 원래의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연락처
터키 종교부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방언 간행부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TÜRKİYE
전화번호 : +90 312 295 72 81
팩스 :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Hz. İSA
KORECE